

‘수비 달인’ 김호령 중장거리타자 꿈꾼다



KIA 퓨처스 선수단 내달 10일까지 대만 캠프

파워 향상 자율 훈련 위해 오키나와 대신 선택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대만 캠프를 차린다.

KIA 퓨처스 선수단이 오는 9일 대만으로 출국해 3월 10일까지 스프링캠프 일정을 소화한다. 대만 진리대학 야구장에서 진행될 이번 캠프에는 정회열 퓨처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7명, 선수 27명 등 총 3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오는 22일까지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 등을 소화하면서 워밍업을 한다. 23일부터는 연습경기 일정이 진행된다. KIA 선수단은 중국 국가대표팀 및 대만 프로팀, 한국 팀들과 10차례의 연습경기를 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만에서 시즌 준비에 나서는 퓨처스 선수단에서는 오키나와 연습경기를 노리는 이들도 있다.

KIA 1군 선수단은 지난 1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하고 있다. 예년보다 보름가량 캠프 출발이 늦어졌지만 비시즌 자율 훈련에 공을 들이던 선수들은 실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캠프 도착과 함께 피칭 훈련을 소화한 투수들은 6일부터 라이브 피칭에 돌입하면서 마운드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10일 자체 흥행전을 시작으로 실전체제로 돌입하는 오키나와 선수단은 14일 일본 야쿠르트와 첫 연습경기를 치른다. 이후 야쿠르트전을 포함해 10차례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육식 가리기’를 진행한다.

연습 경기 일정이 시작되면 오키나와와 대만 캠프의 멤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한정된 타석과 마운드 탓에 치열한 1군 경쟁 무대 대신 퓨처스 캠프에서 더 많은 경기와 훈련을 소화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만 캠프로 이동하는 선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전에서의 실력을 살펴보기 위해 대만에서 오키나와로 장소를 옮겨 캠프를 마무리하게 될 후보군도 있다.

특히 대만 캠프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외야수 김호령이다. 특급 수비 실력으로 외야에서 입지를 넓혀왔던 김호령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김호령은 코칭스태프의 구상과 달리 ‘중장거리타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파워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코칭스태프는 재량껏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마주리캠프에 이어 이번 오키나와 캠프 명단에서도 김호령의 이름을 제외했다.

타격 변신에 대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호령은 수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타격 변신에 대한 중간 점검과 시즌 구상 차원에서 캠프 중반 김호령을 오키나와로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키나와와 시범경기 무대를 노리게 될 선수들로 대만 캠프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2017 대만 스프링캠프 명단
▲코칭스태프(7명) : 정회열 유동훈 홍세완 박재용 김상훈 김창희 김민우 ▲투수(13명) : 박정철 박기철 박서준(개명전 박상욱) 김기웅 남재현 정용은 임기준 정동현 박동민 유승철(신인) 강찬영(신인) 정운환(신인) 김용인(신인) ▲포수(3명) : 이진경 권유식 신범수 ▲내야수(6명) : 김지성 고장혁 박효일 이승우 김성민 민경남 ▲외야수(4명) : 윤정우 김호령 오준혁 전은석 박정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2016-2017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9라운드 브레멘과의 홈 경기에서 라울 보바디아(아우크스부르크·왼쪽)와 라미네 사네(브레멘)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철 1골 1도움... 팀 역전승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구자철(28)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렸다.

구자철은 6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2016-2017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9라운드 브레멘과 홈 경기 후반 34분에 2-2를 만드는 동점 골을 넣었다.

선발로 출전한 구자철은 풀 베어아웃이 문전으로 올려준 공을 쇄도하며 왼발로 밀어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소중한 득점을 올렸다.

구자철이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은 지난해 10월 말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시즌 전체로 따지면 지난해 8월 독일 포칼컵 득점까지 더해 세 번째 골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라울 보

바디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6승 6무 7패로 승점 24를 기록한 아우크스부르크는 18개 구단 가운데 10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

구자철은 이 보바디아의 결승 득점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무승부 기운이 짙어지던 후반 추가 시간에 구자철이 연결준 공을 이어받은 보바디아가 수비수 등 뒤에서 절묘한 오른발 슈트로 브레멘 골문을 다시 열었다.

구자철은 이로써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시즌 전체로는 컵 대회의 1골, 1도움을 더해 3골, 3도움이 됐다.

구자철과 팀 동료 지동원(26)은 나란히 선발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출전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연합뉴스

“U-20 엔트리 구상 70% 윤곽”

신태용호, 포르투갈 전훈 마쳐

오는 5월 20일 국내에서 개막하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U-20 축구 대표팀이 3주 일정의 포르투갈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 선수들은 7일 오후 4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번 포르투갈 전지에 참가했던 ‘FC바르셀로나 3총사’ 백승호(바르셀로나B)와 이승우, 장경희(이상 바르셀로나 후베닐 A)는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신태용호는 5차례 평가전에서 2승2무1패를 기록했다. 특히 치열한 유럽 예선을 뚫고 U-20 월드컵 본선에 오른 포르투갈 대표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끝에 1-1로 비겨 자신감을 충전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전훈을 통해 U-

20 월드컵 본선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다는 평가다. 신태용호의 강한 압박 축구 스타일을 선수들에게 주문했고, 베스트11 윤곽도 잡았다.

신 감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전훈에 이어 이번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는 선수들의 실전 능력을 점검해 엔트리 구상을 70% 정도 마쳤다”고 전했다.

‘바르사 3총사’ 중 전훈 평가전 5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백승호와 강한 투지와 체력을 자랑하는 이승우는 신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신 감독은 귀국 후 춘계대학연맹전을 지켜보고 추가로 대표팀에 발탁할 선수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대표팀은 3월 중순 다시 소집돼 같은 달 25일부터 30일까지 U-20 월드컵 테스트 이벤트를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에 참가하며, 4월 최종 엔트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28회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 나선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한꺼번에 추가하면서 국가별 메달 순위 3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박지원(단국대)이 2분30초622의 기록으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사진은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전 레이스 도중 노도희(뒤편 왼쪽)가 장이재(중국)와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 /연합뉴스

동계U대회 쇼트트랙·빙속 금 4개 추가...한국 3위로 경총

제28회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 나선 한국 선수단이 ‘전통의 메달밭’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한꺼번에 추가하면서 국가별 메달 순위 3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박지원(단국대)이 2분30초62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김도겸

(스포츠도토·2분30초773)은 0.151초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1,500m 금메달도 한국 태극낭자들의 몫이었다. 손하경(한국체대)은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4초591로 우승했고, 함께 나선 김아랑(한국체대)은 2분35초010으로 준우승하며 은메달리스트가 됐다.

‘금빛 환호’는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팀 추월 종목에서도 두 차례나 쏟아졌다.

이진영(강원도청), 문현웅(한국체대 졸업), 오현민(한국체대)이 나선 남자 대표팀은 4분00초43의 기록으로 일본(4분03초77)을 3초34초 차로 밀어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또 여자 대표팀도 전예진, 남지은(이상 한국체대), 임정수(강원도청), 박종원(단국대)이 호흡을 맞춰 3분13초65를 기록하며 러시아(3분18초58)를 4초93초 차로 따

돌리고 우승했다.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보낸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메달 순위 3위를 기록, 전년도보다 4계단 뛰어올랐다. 러시아가 금메달 19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2개로 여전히 1위 행진을 달리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금메달 10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0개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전초전’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오늘 개막

강원·경기·서울서 10일까지...스노보드 첫선

제14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장애인올림픽)를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880명(선수 421명, 임원·관계자 459명)이 총 7개 종목에서 차용을 겨룬다.

대회는 총 네 군데에서 나눠 열린다.

장애인 알파인스키,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스노보드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춘천의 암방상장, 휠체어 컬링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훈련원 컬링장, 빙상은 서울 동천빙상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선 선수부와 동호인 부를 구분하고 종합점수체계도 변경한다”며 “장애인 동계체전 사상 처음으로 스노보드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스노보드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통

해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선 평창 패럴림픽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아이스하키에선 2015 세계선수권대회 금격수 부문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정승환(31·강원)이 출전한다. 알파인스키에선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 대회전 4위를 기록한 양재림(28·경기)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창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스피드스케이팅 비장애인 국가대표로 뽑혔던 고병욱(27·경기)은 이번 대회 남자 500m와 1,000m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불과 반년 전 2016 리우패럴림픽 사이클 여자 도로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도연(45·세종)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선수로 변신했다. 그는 두 종목 모두 메달을 노리고 있다. 평창 패럴림픽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선 최연소 선수 정훈아(11)가 언니이자 가이드인 정훈지(13)와 출전해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